

## 이은무 선교사 선교칼럼(7)

### 전략 있는 선교

한국, 미국, 선교지 등 어느 교회 가든지 후원 선교사 없는 교회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들은 선교의 사명과 참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교는 전적으로 선교사들의 책임이기에 소극적인 자세로 나가는 경우, 아니면 선교사들에 대한 기대를 접고, 그저 주님이 명하셨기에 하는 명색적으로나마 참여를 해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선교사 파송을 하지만 만족은 하지 못하고 있는 자세들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선교의 부정적 요소들이 교회들로 하여금 선교의 자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선교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서 이것으로 선교를 마무리하고 포기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인가하는 기로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된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고, 교회 존재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선교는 선교사들에게만 맡기거나 난 몰라 라는 피동적 자세를 옳지 않다고 본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선교가 전략 없이 수행되고 있고 방향성을 잃었다고 판단을 하고 문제를 확인하고 재 도전의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문제 있다면 서로가 그 문제의 해결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바로 선교의 승산을 기대하게 되고, 새로운 보람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한국 교회가 많은 장애물들로 인하여 포기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렬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아무리 선교 현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못한다면 현지인들이라고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새로운 선교의 지평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잣대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 밖에 없다. 말씀에 충실하다 보면 그 말씀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 말씀 속에서 도전 정신, 장애들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고, 수 많은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잣대로 변화된 지역적 문화를 측정해야 할 것이고, 변화된 상황을 판단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면 이 잣대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 잣대가 될 것이고,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선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한 15:7)고 하신 것은 주님의 도움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필자는 변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선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교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선교의 리더십은 분명히 세상 리더십과는 구별이 되어야 하고, 같은 문화권에서 행해지는 리더십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초 문화권은 분명히 현장의 리더십의 문화적 관점이 패턴을 이해 해야 하는 것과 선교의 종착역이 현지화를 하는 것이 목표이고, 선교사의 역할은 현지인들이 세워지도록 만드는 일과 함께 지도력의 이양되도록 하는 선교가 가장 바람직한 선교의 결과라고 말을 한다면 이 일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976년에 필자가 선교지로 나갈 때까지 만 해도 한국에서는 '선교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서양에서 온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필자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을 때 현지 사람들은 나에게 "뚜안"(Tuan)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주인"이란 뜻이다. 외국인은 주인이라면 자신들은 머슴이라는 말일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화란에

360년을 지배 받게 되니 그러한 말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인도네시아인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자국우월주의는 여는 나라와 다를 바가 없다. 거기에 교회의 부흥과 함께 선교 운동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경제 성장이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선교의 방향을 일방적인 주종관계가 아니라 동역 관계로 전환을 해야 하고 친구 관계로 바꾸어 사역을 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종이 되는 자세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러한 전략적 자세의 자리 메김은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남반부화(Global South) 하면서 지성보다 영성을 강조하는 기독교 부흥의 패턴을 보면 그 영성적 에너지를 터득하여 호흡을 맞추어 선교 쪽으로 인도하게 되면 그것이 큰 선교적 자산이 되리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동역의 전략은 주님께서도 사용하셨는데 요한 복음 15: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 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현대 선교에서는 친구의 관계가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